

# 오직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

「국립공원협회」 캠페인 (7)

자연과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모범생 기업을 적극 밀어주자

재생지 펄프몰드(종이포장재)개발 시판

주식회사 “한일”

— 연구개발비 1백 30억투자 —

PVC(염화비닐)등 공해유발 재질을 쓰던 용기 대신 재생지 펄프 몰드(종이 포장재)를 사용한 환경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소개한다. (주)한일(대표 李光文)은 '91년 3월 설립당시부터 1백30억원을 투자해 덴마크 하트만사와 기술제휴로 폐지를 재활용한 펄프몰드 포장재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초 환경마크를 따낸 이 회사의 제품은 계란 팩, 계란트레이, 청과물트레이, 야채트레이, 공업제품용 완충고정재, 육모용 유기포트, 가전제품 등 다양하며 하루생산 80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계란트레이는 통풍, 건조, 습기조절이 잘돼 자연상태에서 15~30일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운반도중 파손될 우려가 없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의 판매가 용이하고 사용후 재활용

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재활용·환경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상품이 팔리지 않아 한해 2~3천만원의 저조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최근 모대기업과 선물세트 포장재 생산계약을 맺고 7천만원을 투자, 개발했으나 단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 당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李사장은 『지난해 총리령으로 공포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포장재는 PVC와 스티로폴 등 환경오염에 위해한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포장재를 많이 쓰는 양계조합 원예조합 등과 기존 PVC 용기 제작 업체간의 연결고리가 강해 재생포장재의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한일은 최근 양계조합과 계란트레이 판매계약을 맺고 이를 계기로 점차 시장성이 밝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李 사장은 『현재 추진중인 대구능금협회, 나주 배 원예조합 등과 계약만 성사된다면 판매량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점차적으로 정부기관 및 기업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장전화 : (0658) 546-8355]

## 부드러운 再生화장지 생산 부림제지공업(주)

— 완전 국산 우유팩만 재활용 —

부림제지(대표 尹明植)는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유팩을 이용, 화장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10년 넘도록 계속해온 재활용 업체. 지난 '85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유팩을 원료로 한 100% 재활용 화장지를 제조하는데 성공한 개척자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우유팩 수거에 차질을 빚게됐고 판로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재생화장지 생산은 주춤할 수 밖에 없었다.

尹회장은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해도 재활용이나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때라 우유팩 수거가 잘 안되고 판매도 어려웠다』면서 『자금이 겹쳐 부도가 났을때 재산을 팔아 매운적도 있다』고 사업초기에 힘들었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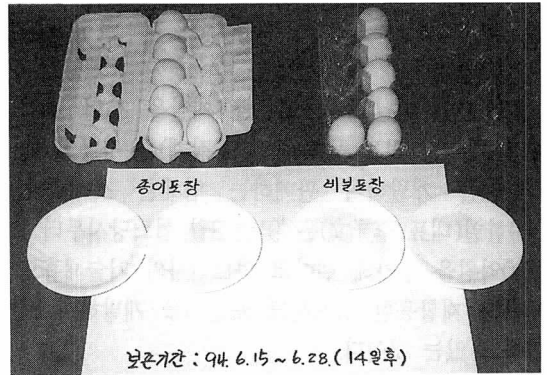
리우회의가 열린 '92년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국내에서도 고조됨에 따라 주부클럽연합회 등 민간단체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우유팩 수거운동과 재생화장지 캠페인 등을 벌이면서 “부림”은 다시 재생화장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아울러 '92년 7월 재활용 화장지 부문에서 환경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품질향상에 주력, 지난해 5월 화장지 가공시설을 2차로 증설했으며 금년 8월에는 미용티슈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부림”은 미용티슈 생산을 위해 2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했는데 재생우유팩을 고온에서 살균처리하는 새로운 설비를 개발, 특허청에 장치특허를 신청해 놓고 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자동화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화장지를 품질향상에 힘써 작년 14

억원의 매출실적을 쌓은 “부림”은 올해에는 이보다 약간 늘어난 16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다른 회사들은 수입된 우유팩으로 재생화장지를 만들어 환경마크를 획득, 조달청 납품시덤핑공세를 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도저히 경쟁이 안됩니다. 국내에서 수거된 우유팩으로 만든 화장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판로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尹회장은 환경마크를 부여기준을 보다 엄격히해 수입원료로 쓰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소규모 재활용업체들이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8평 남짓한 허술한 간이건물에서 “부림”을 꾸려가고 있는 윤회장은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뒤돌아볼 여유가 생기면 사회에 이익을 돌리겠다는 생각에 변함없다며 11월경 우유팩이 아닌 쓰레기(폐지)를 이용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귀뜸한다.

[공장 : 강원도 춘천군 동내면  
전화 : (0361) 262-3518]